

건축

리처드 로저스, 프리츠키 건축상 수상

2007년 프리츠키 건축상 수상자로 영국의 73세 건축사 리처드 로저스가 결정되었다. 프리츠키 상은 건축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중 하나이다. 시상식은 6월 4일 런던에서 있을 예정이며 100,000\$의 상금과 메달이 전달될 것이다. 시상식 장소는 1619년 이니고 존스에 의하여 설계된 뱅킷 하우스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아이아트 재단은 심사자들의 심사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이태리 프로렌스에서 태어났으며, 런던에서 학력을 쌓았고, 그 후 미국 예일대학에서 수학하였다. 로저스는 세련된 삶과 긍정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 그는 글을 통해 정책수립의 자문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그리고 대규모 계획을 통한 사회 변화의 촉매자의 역할을 하였다.”

로저스는 그의 글을 통해 미래 도시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 하였다. 미래 도시는 하나의 활동만을 위한 독립적 존의 개념을 탈피하여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도시는 과거와 같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로 변모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주거, 업무, 쇼핑, 학습, 레저가 복합되는 공간으로써 지속적이며, 다양하며, 변화하는 구조를 수용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상의 심사위원장인 파룸보씨는 작가의 선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40년 넘는 그의 특출난 경력에서, 그는 건축에서 가장 높은 목표를 추구하였다. 로저스의 주요 프로젝트는 이미 근대 건축의 중요한 건축물로 인정받고 있다. 풍피두 센터는 렌조 피아노와 협업을 통하여 만들어진 작품으로 뮤지엄을 혁신을 하였다. 엘리트들을 위한 모뉴먼트로부터 사회와 문화 변화의 대중적 장소로써 도시의 심장을 엮었다. 런던의 로이드 런던 건물은 20세기 후반의 랜드마크적 건물로써 대규모 도기 건물로써뿐만 아니라, 건축적 표현주의에서 고유의 브랜드로 명성을 쌓았다. 그 후 프로젝트로 마드리드의 마가하스 공항의 터미널 4는 현대 운동에 대한 고유한 해석을 하였다. 건물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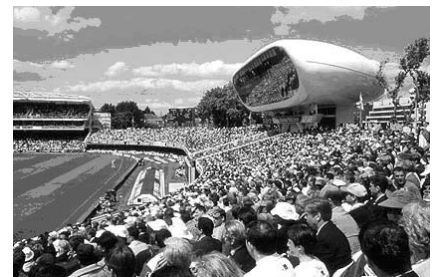
기계로서의 해석으로, 건축적 명확성과 투명성에 대한 관심과, 공공과 사적 공간의 통합, 그리고 사용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변적 평면에 대한 노력이 그의 작업에서 항상 반복되는 주제이다.”

체코 건축사 얀 카플리키의 프라하 도서관 프로젝트

영국에서는 지난 한 세기 동안 많은 급진적 건축사들이 탄생하였으며, 대부분이 이민자들이었다. 러시아인 버스홀드 루베트킨, 헝거리 출신 어노 골드핑거, 영-이탈리아인 리처드 로저스와 이라크 출신 자하 하디드는 영국 모더니즘 발전의 주요 인사들이며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얀 카플리키는 프라하에서 1937년 태어났다. 그는 1968년 소련 침공에 따라 단 \$100을 가지고 런던으로 피난하였다. 결국 렌조 피아노와 리처드 로저스 사무실에 근무하게 되었으며, 풍피두 센터의 공모전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후 파리로 자리를 옮겨, 포스터의 디자인 팀으로 합류하여, 하이텍 운동에 작업을 계속하여 왔다. 1982년에 그의 회사 퓨처 시스템을 설립하였으며, 우주시대에 걸맞는 설계를 하고자 하는 그의 의도를 잘 나타내고 있다.

십수년간 카플리키와 같은 개척적 설계가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믿은 사람은 매우 적었다. MCC에 의한 크리켓 그라운드 미디어 센터는 특유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난형의 알루미늄 구조물로 선박제조 기술을 이용하였으며, 코니쉬 조선소에서 만들어진 후 현재의 위치에 세워졌다. 이 건물은 1999년 스텔링 상을 수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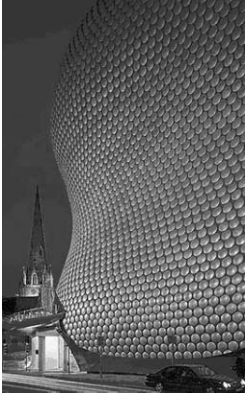


미디어 센터 크리켓 그라운드의 혁신적 건물

3년 전, 버밍햄의 셀프리지 점포가 문을 열었다. 모자이크 형식의 파사드는 도심 재생의

이 난은 인터넷상의
주요 건축관련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상징으로 그리고 우편엽서에도 등장하고 있다. 오늘날 카플리키의 작품은 모데나의 마세라티 뮤지엄, 나폴리의 지하철, 코펜하겐의 주택 등 전세계에 퍼져 있다.



버밍햄의 랜드마크가 된 셸프리지 점포

지난 3월 퓨처 시스템은 프라하 도서관을 수주하였다. 카플리키의 첫 고향에서의 작품이자, 공산주의가 소멸된 이후 체코 공화국의 가장 중요한 공공 건물이다. 퓨처 시스템은 400개의 작품들과 경쟁하여 당선되었다. 이 작품의 특징은 벽과 지붕이 하나로 이어지고, 샴페인 색의 알루미늄 타일로 되어 있으며, 하늘과 나무를 반사하여 주는 특이한 형상을 하고 있다. 지상으로부터 6층의 높이로 꼭대기에서는 도시의 밖을 볼 수 있다. 천만권의 책이 지하에 소장될 예정이다. 여기에 자동 수납 시스템에 의하여 책이 독자 앞에 5분 이내에 배달 될 수 있다. 건물의 가장 드라마틱한 특성으로는 발 아래 로봇이 춤추는 광경을 방문객이 볼 수 있다.



제안된 프라하 도서관의 광경. 민주적 국가의 민주적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된 색은 과거와 미래를 나타내고 있다.

렌조 피아노의 LACMA 확장 계획

최근 렌조 피아노에 의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예술 뮤지엄 확장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이 계획은 방문객들의 체험을 보다 풍부하게 함으로써 뉴욕 못지 않은 캘리포니아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확장의 첫 단계는 1.56억\$의 예산으로, 새로운 주차장과 확장된 정원, 그리고 피아노에 의해 설계된 두 건물을 증축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작년에 새로이 디렉터를 맡은 마이클 고븐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현재 두 단계의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첫 단계는 모금과 프로그램의 확립이다. 엘리 보드의 도움으로 고븐은 BP로부터 25백만 달러를 기부 받았다. 이에 대한 대가로 개방적 파빌리온 입구에 회사의 이름을 붙일 것이다. 그는 린다와 트뤼윙트 렌식 부부를 설득하여 2,500만\$의 기부를 받았다. 이 비용으로 BCAM 건물 뒤에 피아노에 의한 새로운 단층 건물을 지을 계획이다. 이는 확장의 두 번째 단계의 부분으로 LACMA West라고 불리워지는 윌셔와 파이어팩스 건물을 개조하는 것이다. 피아노에 의한 계획은 이전의 뮤지엄에 비하여 보다 여유롭고, 화사하며,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남캘리포니아 분위기의 연출에 있다. 개방 공간의 파빌리온은 갤러리로 들어가는 역할뿐만 아니라 뮤지엄의 정원과 조각 공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연결되고 있다.

덴버 뮤지엄, 세계 5대 불가사의 건물로 선정

덴버 아트 뮤지엄은 2007년 4월 콘테 나스트 여행지의 세계 5가지 불가사의한 건물로 선정되었다. 다니엘 리베스킨트에 의하여 설계된 이 뮤지엄은 146,000ft² 규모의 티타늄 외관 건물로 2006년 10월에 개관하였다. 전 세계의 새로운 불가사의를 추재한 5작품 중에는 리베스킨트 이외에 르 꼬르뷔제, 프랭크 게리, 벤자민 와너와 머피 · 잔 건축사가 선정되었다. 이 세계의 새로운 경의적 건물로 선정된 것에 추가하여 타임지 비평가 리차드 라카요는 이 건물은 AIA가 뽑은 미국의 150개 건축물 중 항상 하나로 선정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다.

영국 미들스브로의 현대 아트센터 완공

에릭 반 에그라트에 의한 영국 미들스브



완공된 미들스브로의 현대 아트센터

로의 현대 아트센터가 완공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도시 재생 프로젝트의 부분으로 새로운 공공 광장을 만드는 작업의 일환으로 계획되었다. 에릭의 계획안은 2002년 국제 공모전에서 당선 되었다. 광장은 조경 건축회사인 웨스트 8과 협력에 의하여 설계되었다. 건물과 광장은 도심 중앙 언저리의 버려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은 함께 미들스브로의 재생 프로그램의 주요 요소들을 형성하였다. 갤러리와 광장의 크기는 주변과 연계되어 있으며, 재료의 사용은 기존의 건물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선정되었다. 흰색 라임스톤과 유리가 갤러리를 가볍고 투명하며, 접근 가능한 건물로 만들고 있다. 산화된 금속패널과 혼합된 유리는 건너편 광장과 연결적 개념을 만들고 있으며, 예전에 버려졌던 지역을 친근하고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는 외관을 갖고 있다. 중요한 공간은 갤러리의 입구부분으로 16미터가 넘는 높이로 중앙에 계단실을 가지고 있으며, 돌 커튼으로 지지되는 프레임으로 만들어져 있다. 입구의 투명한 파사드는 변화적 공간을 만들고 있다. 갤러리와 공공 광장을 연결하며, 두 공간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있다.

월 하우스의 입주 신청

월 하우스 재단은 올해 예술가와 건축가를 대상으로 두 번에 걸친 입주 신청을 받고 있다 기간은 4월~6월과 10월~12월이다. 입주는 존 헤독에 의하여 설계된 월 하우스에서 이루어 질 것이며, 자체 내에 스튜디오 공간이 있다.

신청은 디자인 된 공간, 특히 시적으로 디자인 된 공간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예술가와 건축가의 경우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거주 기간 동안의 계획서를 내야 하며, 자

신의 작품을 이력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력서의 경우 자신의 작업에 대한 개황과 교육, 출간, 전시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제안서는 500단어 이상을 넘어서는 안되며,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설계된 공간의 시적 구성과 연관된 내용이어야 한다. 거주 기간은 3개월이며, 이 기간 중 다른 건축가, 예술가들과의 협업이 가능하다. 거주 후 자신의 작업에 대해 발표하여야 한다.

2007 실내 디자인 트렌드

실내 디자인 부분의 시장은 현재 업체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고자 하는 경쟁과 새로운 분야의 개척을 위한 업체간의 아이덴티티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디자인의 질적 요소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고 있으며, 혁신과 디자인은 포화 상태인 현재의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중요 경쟁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다. 세계화된 시장에서 디자인의 질은 가장 중요한 차별화 전략이다. 현재의 불안정한 시장의 상황에 따라 많은 제조업자들은 증명된 제품 생산에만 몰두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화를 추구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결과로 홈 액세서리 분야에서는 다양한 제품을 시험적인 관점으로 시장에 내놓아 실험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2007년의 경우 주된 경향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일부 회사들은 이와 같은 경향을 “새로운 시도를 할 때”라고 이야기 하기도 한다.

시상

2006 듀릭스 칼라상 시상

2007 듀릭스 색채 상 시상식이 호주 멜버른의 유레카 타워에서 개최되었다. 리베라티 칼라의 리비 베니스이 멜버른의 골든 몽키 라운지 바와 아시안 타파스 설계에 따른 그랑프리 타이틀을 차지하였다. 1930년대 상해 분위기 연출로 열정과 활기와 유혹의

색채적 분위기를 연출한데 대한 인정으로 수상하게 되었다. 심사위원들에 따르면, 베니스의 세련된 색채의 사용은 그 환경과 잘 어울리며, 다른 마감과 잘 어울어지고 있다. 그 결과 골든 몽키는 상업 인테리어 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다음은 각 부분의 수상작이다.

- 상업 인테리어 부문 - 골든 몽키 라운지 바와 아시안 카파스 - 리비 베니스
- 상업 외장 부문 - 리치몬드 역사 개보수 - 콕스 건축사사무소의 데이비드 솔티스
- 주거 인테리어 - 본드 하우스 - 마시 캐수 맨 쿨루스 건축사사무소의 마크 캐쉬맨
- 주거 외장 부문 - 얼버리 주거 - 데이비드 보일 건축사사무소의 데이비드 보일
- 고학년 부문 04~06학년 - 구아달라자라 도서관 - 시드니 대학의 미콜라스 바버
- 저학년 부문 01~03 학년 - 한스백과 글라드라그 - 커튼대학의 짐마 코프



상업 외장부분 상을 수상한 리치몬드 역사 개보수 프로젝트

듀릭스 칼라 상은 호주의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색상의 창의적 사용을 육성하고 권장하는 상이다. 올해의 제출 작품들은 색의 의미를 탐구할 것을 요구 받았으며, 심사자들은 그 결과를 심사하였다. 이번 시상에서는 총 상금이 25,000\$로 증액되었으며, 대상의 경우 17,000\$를 수상하였다. 최종 선정 작품들은 디자인 전시회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이들 수상작은 IDA 시상 후보로 자동 등록된다.

전시회

유토피아에 대한 환상 전시회

유토피아는 이상 사회를 의미한다. 평화

롭고 조화로운 곳이나 지역사회를 이야기하며, 그곳에서 사회적 모순이 없는 집합적 꿈의 사회이다. 과거 유토피아에 대한 꿈이 있었으며, 현재에도 유토피아에 대한 생각이 있으며, 그리고 미래를 꿈꾸는 사회에 대한 유토피아도 있다. '21세기의 우리의 유토피아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이 전시회는 유토피아에 대한 예술가의 꿈은 사회적 은유로써 근대 사진과 영화를 회고하며, 어떠한 결론을 얻고자 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유토피아에 대한 이상이 도시의 쇠락, 부패, 결백의 손실, 자연 자원에 대한 무시, 자연의 혼란적 사이클에 의하여 좌절되는 현실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유토피아의 맥박과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서방의 고전적 생각으로 자연 대 기술, 지역 대 세계, 도시와 시골, 그리고 개인과 집단간의 갈등 등으로 요약하고 있다.

프랑스 리만 로브 아트센터에서 5월 23부터 6월 29일까지 열릴 유토피아 미라지 전시회는 30여개의 근대 작품의 전시를 통한 이들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과 영화에서 보여주는 예술가들의 작품은 조경, 도시경관, 건축, 실내, 주거 커뮤니티, 도시 외곽과 실패한 유토피아의 생각을 은유하며 사회적 척도로 사용되는 실제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작업들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도시, 공사현장, 리조트, 이상적 땅 등 여러 곳을 생각하게 한다. 전시회는 꿈, 파괴, 스크린, 에텐의 네 가지 주제로 나누어 전시하고 있다. 작품들은 많은 유토피아 프로젝트와 사회에서 미래에 발견될 수 있는 꿈과 희망을 다루고 있다. 자연과 조화롭게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의 이미지는 이들 작업을 잘 나타내고 있다. 파괴의 주제에 관한 작업은 유토피아적 이상의 모뉴먼트가 남긴 것을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이미지들은 유토피아적 시나리오에서 인공적인 것의 역할에 대한 다른 이미지들을 탐구하고 있다. 스크린의 경우 영화로 표현되어 있으나 우리 가운데 숨어 있는 실패한 유토피아를 보여주고 있다. 에텐은 교외 집단주거, 휴가를 통한 꿈꾸는 재생의 탐구에 대한 이미지로, 과거의 꿈이 아니라 오늘날 유토피아에 대한 이상으로 재생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 유토피아적 꿈에 대한 전시는 대형 칼라사진으로 전시되고 있다.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인간에 관한 로맨틱한 관점은 근대 사회적 현실에서 후기 로맨틱 관점으로 표현되고 있다.

도시 디자인 컨퍼런스

6월 14일~16일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디자인 센터의 디자인 익스체인지에 의한 다제간의 컨퍼런스가 개최될 예정이며, 도시들의 다양성과 미래에 관한 주제로 토의가 벌어질 것이다.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삶에서의 도시의 역할에 관심을 가지고, 이 컨퍼런스는 도시의 건축과 디자인 그리고 물질적 문화, 고밀화, 도시 재생, 브랜드화, 조닝, 재활용, 활성화, 사회적 책임과 역사의 보존 등에 관한 주제의 논문을 초청하였다. 이와 함께 도시의 녹색공간, 하부구조, 기술, 환경주의, 지속가능성, 도시 외곽의 성장, 공공 교통, 유니버설 디자인, 가로 정비, 기후 변화와 재해에 대한 준비 등에 관한 논문도 초청되었다. 이 컨퍼런스는 역사적이며 현대 문화와 도시의 경험에 대한 윤곽과 21세기와 탈산업사회에서의 도시에 대한 조망을 하고자 하고 있다.

공모전

멕시코의 녹색 건물 국제 공모전에서 KMD 건축사사무소 당선



KMD 건축사사무소에 의하여 당선된 시네폴리스 본부 건물

KMD 건축사사무소는 멕시코 미초아칸 시 마렐리아에 있는 시네폴리스 본부를 위한 새로운 '녹색' 건물 국제디자인 현상공모에서 당선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시네폴리스는 세계에서 6번째로 큰 시네마 체인으로 멕시

코의 대표 극장 운영자이기도 하다. 이 콤플렉스는 올해 하반기에 착공될 예정이다. 부지는 멕시코시로부터 100mile 정도 서쪽에 위치한 신중도시인 모델라의 외곽 언덕 위이다. 이 새로운 본부 설계안은 75,000ft² 규모의 저층 건물이다. 1,600만\$의 예산으로 건립되는 이 프로젝트는 2008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모델라로부터 잘 보이는 위치에 지역의 부흥하는 경제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상징물이 될 것이다.

이 건물의 디자인은 가장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이 될 것이며, 시네폴리스 본부는 자연 채광과, 확장적 녹색 지붕, 차양막과 자연 환기를 사용하여 거주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거주자의 생산성이 주요 주제이다. 삼중의 녹색이라는 개념으로 계획되었다. 일반적 에너지 효율 건물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는 면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공간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 설계의 핵심이다. 또한 거주자의 웰빙을 고려하는 것과, 일상 생활 중 공공의 경험에 자연과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다.

최근의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적당한 자연광과 녹색 공간에 대한 시각적 접근은 거주자의 생산성 향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병가나 결근율의 저하로 나타나고 있다. 프로젝트에서 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의식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다. 시네폴리스 본부는 조형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첫 두개 층은 언덕의 방향으로 배치되어, 기념비적 타워가 오피스의 리셉션 부분과 연결될 수 있다. 3층의 경우 그 방향을 바꾸어 북쪽으로 배치되어 계곡에서 일반 대중에게 떠 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상징성을 보여준다. 이 사무실들은 180도의 경관을 자랑한다.

뉴욕의 건축 공모전 - 웨디움

미국 뉴욕의 AIA 지부의 새로운 건축가 그룹은 웨디움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작업에 의한 포트폴리오 공모전을 열고 있다. 이 공모전은 오늘날 건축가에게 필요한 스케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공모전에서 선택된 건축가는 현장에서의 그리기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특

권이 주어진다. 국제적 참가가 가능하다.

선정은 세 단계로 구분 된다. 제 1단계는 개방형으로 모든 건축가가 참석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1단계에서 제출한 사람 중 10%를 선정한다. 이 단계에서는 도면작성 능력과 함께 언어구사 능력을 평가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2단계로부터 최종적으로 12명을 선정한다. 세디움 이벤트에 참석할 기회를 갖는다. 최종 선택되는 12명은 전화나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할 것이다. 2007년 6월 1일까지 접수 신청을 받는다.

바셀로나 풋볼 클럽 리모델링

가장 현대적인 모습으로 바셀로나 풋볼클럽 스타디움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다음 달 올해 9월 24일 50주년을 맞을 이 스타디움의 리모델링에 대한 공모전이 전 세계의 건축가를 위하여 발표되었다. 건축가의 선정은 공정하고 공개적 절차를 통하여 선정될 것이다. 리모델링의 제안의 선정은 카탈루냐의 건축 협회의 지원에 의하여 국제 공모전으로 진행될 것이며, 협회는 전문 건축가에 의한 참여를 할 것이다. 추후 설계와 프로젝트 진행을 맡게 될 것이다. <http://www.fcbstadium.com/>

위대한 헬싱키 비전 2050 : 국제 아이디어 공모전

헬싱키광역시와 핀란드 정부의 환경청은 광역 헬싱키의 미래의 토지 사용과 공간적 비전에 대한 공개 아이디어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 공모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2050년 광역 헬싱키의 비전을 만들기를 바라고 있다. 이 공모전은 미래의 토지 사용에 대한 혁신적 아이디어로 지속가능한 전략에 의한 개발과 삶과 사업을 하기 매력적인 광역 헬싱키로써 현재의 입지를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확고한 해결책 찾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모자는 광역 헬싱키의 2050년에서의 일반적인 비전에 대한 제안과 이를 지원하는 상세한 연구 내용을 요구한다. 50만 €의 상금이 주어질 예정이다.

디지털

스케치를 위한 노력

근본적으로 CAD에 새로운 그림을 만든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CAD 회사들은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쉽게 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는 키보드와 2D 기반의 마우스의 도구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이다. 알리아스, 네메체, 오토데스크, 옛 래스트(현 구굴) 사는 연필로 스케치 하는 방식을 모방하는 스케치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 알리아스와 구글의 제품들은 성공을 거두었으나, 네메체와 오토데스크는 실패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명령어를 줄이는 접근을 하였다. 오토데스크사의 기술 이사직을 그만둔 후 존 린치는 3D CAD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이 소프트웨어는 6개의 명령어 조작이 가능하다: profile, extrude, cut, offset, taper, and place. 다른 모든 조작은 그림을 사용하거나 치수를 사용하여 완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시장에서 디자인의 다양성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여 실패하였다.

오늘날, 이 문제 해결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모이사(MoI: moment of inspiration)의 시도를 <http://www.moi3d.com>에서 볼 수 있다. 다른 시도로 마이클 리들을 들 수 있다. 그는 AutoCAD의 원작자라 할 수 있다. 그는 가장 빠른 패스트 캐드를 개발하였다. 현재 CAD 프로그램의 기본에 대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의 블로그 <http://michaelriddle.com>을 통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그의 블로그에서 연필과 종이처럼 사용하기 쉬운 도구의 개발이라는 불가능한 도전을 지속하고 있다.

포토샵에서의 CAD를 위한 기능

아도비사는 CAD 사용자들이 도면을 포토샵으로 가져와 이를 재구성하는 기능을 보강하였다. 렌더링을 위하여 3D CAD 모델의 텍스처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하였다. 주된 기능들은 다음과 같다.

- 3D 모델을 가져와, 소점을 만들고, 이를 이용한 렌더링 만들기 기능

- 투시도 모드에서 이미지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추출하고, 측정하기
- 이를 동적 그래픽을 가져와, 비디오 프레임의 레이어로서 변환

확장 버전은 현재의 디자인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의학이나 과학 연구 분야에서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기능으로는 3D CAD 모델과 포토샵 확장 부분의 연결이 아직 미숙하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 확장 포토샵의 경우 오직 5가지의 3D 포맷만을 지원한다. : U3D, 3DS, OBJ, KMZ, 그리고 Collada
2. 이를 작업하기 위하여 아크로벳 3D를 구입하여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3D CAD 파일을 읽고 이를 포토샵 확장 버전을 위한 U3D 포맷으로 출력할 수 있다.
3.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포토샵 SKD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포토샵 확장 버전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한계가 1~1.5백만의 다각형에 제한이 되며, 이에 따라 아크로벳 3D를 사용하여 다각형의 수를 줄여야 한다.

아도비사의 새로운 아크로벳 3D v8

아도비 시스템사는 새로운 버전인 아크로벳 3D의 8.0 버전을 발표하였다. 이는 3D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PDF 문서 양식으로 3D 디자인 협업과 CAD를 위한 문서양식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사용자들은 아도비 랩으로부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베타 버전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이 다운로드는 다음에서 받을 수 있다: http://labs.adobe.com/technologies/acrobat3d_version8/

이 새로운 버전은 디자인 엔지니어링, 기술 출판 및 제품 산업에서 창의적 전문가를 위한 제품이다. 자동차, 항공, 중공업, 그리고 건설업계를 위한 제품이다. 3D CAD 파일을 변환하여, 프로젝트 데이터를 매우 압축된 형태의 PDF 문서로 교환할 수 있게 한다. PDF 파일은 동료, 공급자, 협업자와 고객과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하며, CAD 데이터 호환성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고 있다.

3D 모델이 PDF 파일로 변환된 경우, 이 버전에서는 효율적으로 팀원들간에 문서에

대한 리뷰를 아크로벳 리더를 사용하여 할 수 있다. 리더를 통하여 사람들은 제품의 상세한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이 버전은 낡아진 성능으로 보다 압축된 형식과 정확한 기하학, 크고 복잡한 형태를 수용할 수 있다. 현재 40여개 포맷의 변환이 가능하며, 이들 중에는 오토데스크 인벤터, 카티아, 솔리드웍스 등이 있다. 최신 버전에서는 제품 제조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하학적 치수와 오차 범위, 중요 내용, 치수 등을 3D 모델에 기입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PDF 피알로부터 정확한 제조 치수를 STEP, IGes 등의 호환 포맷으로 출력할 수 있다.

오토데스크사, 인도 IIT - 마드리드와 교류 협정 체결

오토데스크사는 인도의 IIT-마드리드와 교류 협정을 맺고 혁신 디자인과 연구를 위한 센터 설립 계약을 맺었다. 오토데스크사와 IIT 마드리드 공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번 협약에 의하며, 두 기관은 공동의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설계 및 엔지니어링 전문가를 양성하여 중소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토데스크사는 기반 시설로 컴퓨터 시설, 3D 소프트웨어, 산업 디자인 도구를 제공하며, 디자인 과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협력할 예정이다.

오토데스크사 800만 라이선스 매출 계약 달성

오토데스크사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자가 8백만을 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새로운 기록은 2D 소프트웨어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모델 기반 3D 소프트웨어 시장의 시장 확대에 의한 것이다.

2007년 제4분기 만에도, 오토데스크사는 47,000개의 3D 상업적 버전의 고객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인벤터 시빌 3D와 래빗의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다. 모델 기반 소프트웨어는 2006년의 동 분기와 비교하여 40% 증가하여 1.21억\$를 달성하였다. 매상으로는 24%가 증가하였다. 새로운 시장이라 할 수 있는 아시아, 동유럽, 중동, 라틴 아

메리카에서 라이선스의 판매가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문서처리 프로젝트

조호 온라인 사는 온 라인 스토리지 시스템 옴니 드라이브와 함께하는 온 라인 문서 처리 소프트웨어 서비스 회사이다. 조호를 사용할 경우, 온라인상에 문서를 만들고, 저장하고 에디팅 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두 단계로 구성된다.

① 인터넷이 연결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며,

② 공유가 가능하며 한 사람 이상이 이에 접근하여 수정을 할 수 있다.

단점은 다음과 같다.

① 이의 활용을 위하여는 인터넷 접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② 이 같은 개발사가 많아 어디를 사용하여야 하는 문제이다. 구글과 조호가 현재 리더이며, 마이크로 소프트사가 이 분야에 뛰어 들고 있다. 조호 프로젝트는 단일 프로젝트의 경우 무료이며, 100MB의 공간이 제공된다.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위하여는 한달에 \$5~\$80과 디스크 공간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한한 사람들이 접근 가능하다.

CAD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경우로 브릭스캐드에 의한 문달이 있다. 이 서비스는 그래픽 중심으로, 빠르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전문가적 양식을 제공한다.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는 <http://vondle.bricscad.com>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입력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 Username = visitor
- Password = vondledemo

가격은 전문가를 위한 가격으로 년 1,980\$을 내야 하며, 무한한 프로젝트와 사용자의 접근이 가능하다.

가상 시공 비코 소프트웨어 사의 설립

그래피소프트사의 전 임원이었으며, 스케치업을 개발하였던 마크 소이어는 그래피소프트의 버추얼 컨스트럭션 제품 군을 인수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였다. 비코 소프트

웨어라 불리우는 이 회사는 가상 시공 분야의 개발과 판매를 지속할 것이다. 소이어와 공동으로 이 회사를 설립한 돈 헨릭과 올리 세파넨은 그래피 소프트로부터 이 회사로 옮겼다. 그래피 소프트는 최근 네메체에 의하여 인수 되었다. 네메체가 인수 한 직후 가상 시공 기술 부분에 대한 분할 계획이 발표 되었다. 그래피소프트사는 새 회사와 긴밀한 협조를 구축할 것이라 이야기 하고 있다. 이는 많은 고객들이 현재 그래피 소프트의 아키캐드의 사용자이기도 하며, 현재의 고객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그래피소프트의 대표 도미니 갈레오는 이 분할 결정은 대형 건설사의 주된 도구로 사용될 때까지 수 년이 걸릴 것이라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시공 분야의 개발 부분은 2006년 1/4분기~3/4분기동안 7.56억 €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2배에 이르는 매출이다. 운영에 따른 손실은 6.28억 €로 새로운 자본회사 보벨리스 벤처가 비스코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투자자이다. 대부분 산업의 경우와 다르게, 비스코는 완전한 제품 군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다. 현재 제품군은 다음과 같다.

- 컨스트럭터 2007 - 건물 시공 모델을 위한 소프트웨어로, 스케줄과 연계 가능
- 에스티메이터 2007 - 텍스트 기반과 모델 기반 모두의 시공 견적 시스템
- 콘트롤 2007 - 일정계획과 시공 제어 제품으로 계획과 스케줄을 관리하기 위한 위치기반 기술을 사용
- 5D 프리젠테이션 2007 - 다른 제품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시각화

그래피 소프트웨어의 호환성 인증 IFC 2x3 획득


아키캐드는 IFC 2x3의 두 번째 단계의 인증을 획득하였다. 이는 미국 웰스햄에서 열린 3월 중순 IAI 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아키캐드 10의 추가 모듈로의 IFC 2x3은 그래피소프트사의 사이트로부터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IFC 2x3은 건축과 구조와 같은 설계의 다른 부분간의 데이터 호환을 가능하게 한다. IFC 2x3은 3D IFC 모델 아래에 새로운 2D 모델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 곡선, 원, 문자, 문양 들은 IFC 파일 내부에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IFC 2x3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IAI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BIM과 녹색 환경

녹색 환경의 중요성이 지구 온난화와 관련하여 강조되고 있는 현재에 건설업계는 지속 가능한 설계 부분과 연계하여 BIM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BIM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는 의미론적으로 지능적 포맷으로 건물의 형태를 가져와 에너지 사용을 포함한 건물의 행태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BIM과 녹색 건물 간의 자연스러운 연관 관계를 가지게 된다. BIM 부분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는 그래피소프트사의 경우 IFC와의 호환성을 바탕으로 에너지 분석 분야에 선두 주자이다. 에너지 플러스, 아키 피직스, 예코 텍과 리우스카 등과 연계한 도구들을 내놓고 있다. 오토데스크사의 경우 지속가능한 디자인이 중요 분야로 떠오름에 따라, 오토데스크 유니버시티 2006에서 이에 대한 강의가 있었으며, IES(Integrated Environmental Solutions)와의 파트너십을 맺고 래빗과 건물 성능 분석 분야의 통합을 추진 중에 있다. 벤틀리사는 얼마 전 “BIM for Green Buildings”이라는 하루의 대표 회의를 뉴욕에서 개최 하였다. 이 이벤트는 새로운 BIM의 방법론과 지속가능한 디자인 방법론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이었다.

2007 건축 시각화 공모전

2007 건축 시각화 공모전에 200개의 작품과 600여개의 이미지가 제출되었으며, 심사 위원회는 25개의 작품을 선정하였다. 앞으로 3개월 동안 25명의 선정자들은 두 가지 도전을 하여야 한다. 이들은 상상력과 능력을 동원하여 건축 일러스트레이션과 애니메이션의 예술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승자와 최종 경선자들은 푸짐한 시상이 있을 예정이다. 이 공모전의 목적은 건축 일러스트레이션과 커뮤니티의 참석과 비평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제공 : 윤기병(원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